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 :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의 매개효과

Family-Friendly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박인숙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Park, In-Sook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관계가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축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s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1차년 자료(2019) 중 취업모 627명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였고, PROCESS를 사용하여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웃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축진이 유의하게 높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는 일-가족 축진을 높이고 갈등을 낮추는 것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양육환경 적절성은 일-가족 갈등 및 축진에 의한 간접효과 외에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은 일-가족 축진을 낮춰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특성이 취업모의 일-가족 상호접점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러한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경험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삶의 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of working mothers. For th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response data of 627 working mothers from the 11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9) and multi-mediation effec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PROCES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neighbor support, the higher the work-family facilitation, which significantly increase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appropriateness of parenting environment and community service infrastructur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with life satisfaction through increasing work-family facilitation and lowering work-family conflict. Moreover, the appropriateness of parenting environment was positively 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and it was

\*주저자, 교신저자: 박인숙(issrnaggob@snu.ac.kr), <https://orcid.org/0000-0001-7650-6786>

a only variable that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venient access to community service infrastructure was found to lower work-family facilitation and lower life satisfaction, confirming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family-friendly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re important for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mprove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characteristics.

**Key words** : family-friendly community characteristics,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facilitation, life satisfaction

## I. 서론

가족규모의 감소와 맞벌이 요구에 따른 가족기능 저하, 결혼과 출산 등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양육과 돌봄을 여성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육아에 의한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직장차원을 넘어 취업모의 돌봄부담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07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9년을 시작으로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실태조사 이루어졌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친화 직장환경과 가족친화 마을환경(지역사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할 수 있다(법제처, 2020).

가족친화 직장환경은 일-가족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하며, 가족친화 마을환경은 노인 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 공간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법제처, 2020). 한편, 정부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계의 논의와 연구는 주로 가족친화제도나 직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고(김소영, 2017), 가족친화제도 등 직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차원의 지원이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이나 지역사회 조성 역시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의 일환임에도,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정책적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신화경·조인숙, 2013; 진미정, 2018; 차성란, 2020).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일-가족 양립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정이다(김소영, 2018).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정책 과제 of 효용성과 목표달성 정도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줄 실증적 근거 역시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김소영, 2017).

하지만 지역사회는 아동들에게 있어 개인생활의 공간을 넘어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홍승애·이재연, 2014). 특히, 외부로의 활동이 적은 노동인구에 비해 아동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시간이 노출될 수 있고 지역사회 환경에 보다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곽현근, 2008; 홍승애·이재연, 2014), 아동이 활동하기 안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적합한 지역사회 환경인지 아닌지는 아동과 그들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Sweet, Swisher & Moen(2005)는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생애주기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생애단계 중에서 영유아 가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Swisher, Sweet & Moen, 2004). 이러한 결과와 함께 자녀발달시기 중에서도 영유아기 등 미취학 자녀가 직접적인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연구에서 미취학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인식이나 평가정도를 살펴보거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그들의 양육효능감, 생활환경만족도 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노신애·진미정, 2012; 노신애·진미정, 2013; 신화경·조인숙, 2013; 유재연·진미정, 2012; 유재연·진미정, 2013).

하지만 미취학 아동만큼이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게도 지역의 환경 특성은 중요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활동권이 가족에서 학교로 넓어지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과의 교류가 점점 더 중요해지며 학원을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 노출되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감독과 물리적, 정서적 돌봄의 범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부모

가 직장에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자녀의 안위나 신변 보호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거나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시간간격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가 활동하기 적합하고 그들이 속한 가족의 삶에 유익한 환경적 요소가 많은지 아닌지는 그들의 부모, 특히 취업부모에게 중요한 수밖에 없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많이 필요한 시기(윤연정·이미숙, 2019)로 인식함에 따라, 육아휴직, 방과 후 돌봄 등 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 지원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방과 후 시간에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그들과 그들의 부모는 돌봄의 지원 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박정민·진미정, 2022; 정춘식, 2014).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제공 서비스와 정책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체계 내 위계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돌봄제공 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나 종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선택의 폭이 좁다(강지원·이세미, 2015).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이행해가는 초기 청소년기로서(손보영 외, 2012; 윤연정·이미숙, 2019; 윤희상·한영란, 2008),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신미·전성희·유미숙, 2010)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게 되면서 정서적 불안정이나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학업 수행 등 여러 적응 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손보영 외, 2012; 윤연정·이미숙, 2019).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 역시 사회적 돌봄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을 고려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접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비중을 막내 자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7.3% 정도이나 7-12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약 55.5%로 높았다(통계청, 2022). 또한,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는 가구와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사이의 맞벌이 가구 비율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 가구가 더 높은 맞벌이 가구 비율을 보이는 양상은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시작되는 4학년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그들의 삶의 질 간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들의 삶의

질에 유의하게 관련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직까지도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주요한 요인인 점과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족역할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 취업모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을 위한 모형개발이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주로 이루어졌다(김혜영 외, 2009; 신화경·조인숙, 2013; 조성은·정지영·한지수, 2009; 차성란, 2010; 홍승아·김혜영·류연규, 2007).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파악함에 있어, 서비스 인프라 등 물리적인 환경이나 객관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둔 한계를 지적하며, 이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노신애·진미정, 2012; 유재언·진미정, 2012; 유재언·진미정, 2013). 이처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을 어떤 지표들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소영, 2018). 그럼에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일-가족 갈등 등 일-가족 맥락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김소영, 2017; 김소영, 2018; 박주희, 2010), 실증연구의 추가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어 일-가족 양립 차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안녕이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나이가 일-가족 갈등이나 축진이 기혼 근로자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인 점을 고려할 때(Amstad et al., 2011; Zhang et al., 2018), 일-가족 갈등이나 일-가족 축진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의 결과적 측면이자 동시에 삶의 질의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일-가족 축진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일-가족 맥락 사이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중요한 배경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그들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및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이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도 연구의 양적 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국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과 일-가족 맥락 사이에 관한 실증 연구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의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앞으로도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와 그 방향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특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 및 축진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적 근거는 생태학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일-가족 상호접점과의 관계에 주목한 Voydanoff(2004)에 따르면, 가족과 직장은 지역사회에 내재(nested)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구(demands)나 자원변인은 개인의 일-가족 맥락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김소영, 2017; Voydanoff, 2008).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관한 법률과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가족정책적 관점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개념화하고자 한 진미정(2018)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이동양육과 가족부양이라는 가족기능 수행에 도움을 주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요인들은 기존에 가족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자녀양육 역할부담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차원의 자원으로서 일-가족 갈등이 완화되거나 일-가족 축진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초기연구들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특성이나 수준을 파악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어떤 지표들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소영, 2018). 다만 지역사회의 자원이 직장 및 가족생활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구적으로 밝힌 Voydanoff의 연구들이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와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에 주로 초점을 두어 따라(김소영, 2018),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몇몇 연구(김소영, 2017; 김소영, 2018)에서 국가통계포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복지사회시설 수, 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 수, 12세 이하 아동 비율 등 지역사회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적 요인들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하여 일-가족 갈등이나 축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반대로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 또는 평가가 일-가족 갈등이나 축진과 실질적인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요인과 환경에 대한 인식적 요인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물리적 요인은 인식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개인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느낌이나 생각, 이웃들 간의 교류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복지나 문화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다양한지, 그러한 시설에 접근하기 편리한지, 이용 시 만족스러웠는지 등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물리적 요인과 인식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 요인만을 지표로 가족친화성을 측정할 기존 연구(김소영, 2017; 김소영, 2018)에서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 사이의 관련성이 잘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설명력이 굉장히 미비한 정도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중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대상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일-가족-지역사회 맥락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특성으로 이웃의 지지,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인프라 접근편리성에 주목하고 해당 변인들과 일-가족 갈등 및 축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환경지표와 인식적 환경지표 중 하나의 측면에만 초점을 둔 한계점을 고려하여(김소영, 2017; 진미정, 2018) 이웃의 지지 및 양육환경 적절성과 같은 인식적 지표와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은 취업모가 직장 및 가족 역할을 관리하는 데 유익한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Skinner & Ichii, 2015). 이러한 이웃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공처는 가족, 직장, 이웃, 동료 등 다양한데, 과거에 비해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로 가족체계를 벗어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웃이나 동료 등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변인과 일-가족 갈등 또는 축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연구는 드물다. 제공처의 구분없이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를 지역사회 자원으로 포함한 연구(Skinner & Ichii, 2015)에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긴장(strain)과 일-양육 긴장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일-가족 이익(gains)과 일-양육 이익은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 보다 초점을 두어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주요 예측변인으로 하여 가족→일 갈등 및 가족→일 축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Voydanoff, 2005a)에서 두

종속변인 모두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이웃의 지지나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의 지지나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일-가족 갈등 또는 축진의 관련 변인으로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요인이 국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맥락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나 유의성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친구나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Voydanoff, 2005a; Voydanoff, 2005b; Voydanoff, 2005c)를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지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사회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 행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행정시, 행정동, 아파트 단지 등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정, 201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관적 인식지표의 한 축으로 이웃의 지지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양육환경 적절성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고려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환경 적절성은 취업모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 안전하거나 신뢰할만한 환경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소영, 2017; 김소영, 2018; 박인숙·이재림, 2022). 해당 요인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축진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내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돌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정의 및 평가하고 있는 점(노신애·진미정, 2012; 유재언·진미정, 2013)을 고려할 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환경 적절성이 가지는 의미만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서 양육환경 적절성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양육환경 적절성을 측정하여 일-가족 갈등 또는 일-가족 축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의 유형화 연구에서 유형의 예측변인으로 해당 변인을 포함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인숙과 이재림(2022)에서는 양육환경 적절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갈등수준이 낮고 축진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반면, 홍예지(2021)는 어떠한 유형도 예측하지 못하는 변인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양육환경 적절성의 관련 개념으로서 거주환경 안전성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박주희(2010)에서 거주환경 안전성 만족도는 역할긴장도와 유의한 부적관계에, 역할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양육환경 적절성의 측정 내용과 많은 내용이 중복되는 지역사회의 안전성 부족 및 이웃의 사회적 단합(cohesion)과 일-가족 갈등 및 이익, 일-양육 갈등 및 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Skinner & Ichii, 2015), 지

역사회의 안전성 부족은 일-가족 갈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이웃의 사회적 단합은 일-가족 이익과 일-양육 이익에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반대로 길가에 쓰레기가 널려 있거나 건물이 쇠퇴하거나 마약상이 돌아다니는 등 지역사회가 낙후되고 불편한 것(neighborhood disadvantage)이 일-가족 갈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Young(2015)에서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포함한 변인은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와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편리성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축진에 관한 법률(법제처, 2020)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 공간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환경을 언급한 만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인이다. 이에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에 관해 이용만족도와 접근 편리성 등 두 축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일-가족 갈등과 축진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서비스인프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특성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이 실제로 이용될 때에 그것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 이용 시 불만족스러운 경우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되고, 거주지에서 인프라 시설이 멀거나 접근 편리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 역시 이용의향을 낮추어 시설들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시설의 이용정도에 연관된 요인들은 다양하나 이를 다룬 선행연구(손영미·박정열, 2015; 박주희, 2010)에서도 이용만족도와 접근편리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에 관해 보면, 박주희(2010)는 유자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거주지 내 보육시설, 노인돌봄시설, 가족센터,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주민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등의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역할만족도 및 역할긴장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역할만족도와 유의한 정적관계가, 역할긴장도와는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교원 일인당 학생 수), 가족돌봄 친화성(0-4세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및 생애주기와 지역사회 간 적합성(12세 이하 아동 비율)과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소영, 2017)에서 어떠한 지역사회 자원 변인에서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생애주기와 지역사회 간 적합성을 제외한 네 요인을 표준화한 점수의 평균을 '가족친화 인프라' 복합지수로 하여 적합성과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복합지수는 일-가족 갈등에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두 변수가 지역사회 수준의 분산(총분산의 16%) 가운데 약 1% 정도만을 설명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김소영, 2018)를 보이며, 해당 연구들이 선정한 지역사회 변인 외에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을 설명하는 다른 지역사회 변인들을 조사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의 이용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취업모의 거주지에서 멀리 위치해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자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이 역시 자녀돌봄 부담의 완화를 통해 취업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한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놀이터, 공원, 의료기관, 공공복지시설 등과 같은 문화공간이나 이동과 가족 지원관련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박주희, 2010)은 자녀의 돌봄이나 가족들의 여가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취업모가 가족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과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희(2010)는 거주환경 접근성과 역할 긴장도 및 역할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역할긴장도와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용할만한 서비스인프라 시설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돌봄을 제공해야 할 기회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오히려 그만큼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어 역할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박주희,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일본 및 영국의 기혼 직장 여성의 일-삶 균형의 관련변인으로 지역사회 변인을 고려한 연구(손영미·박정열, 2015)에서 필요할 때 지역자원을 얼마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지역사회 WLB 접근성은 일본의 경우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에 가족지원센터 설치하여 이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구를 중재하는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국내의 여러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2014년과 2015년 통합센터 시범사업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기관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설립되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조되면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기관 역시 다양해졌다. 따라서 보다 최근에 수집한 데이터로 검증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일-가족 갈등과 축진 및 삶의 질

지역사회는 주거지를 둘러싼 공간적 환경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동이나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진미정, 2018). 또한, 지역사회 환경은 주민들의 객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통해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유재언·진미정, 2013). 특히, 지역사회는 국가와 더불어 가족을 이해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국가보다 가족과 더 근접해있는 환경이기에 개인의 생활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정영금, 2007; Mancini, Bowen & Martin, 2005).

국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가족의 돌봄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지역사회 변인과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 자녀양육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노신애·진미정, 2012). 그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적 인식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노신애·진미정, 2012). 국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변인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웃에 대한 만족도와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 사이에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Minnotte, Pedersen & Mannon, 2013)가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웃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Mannon & Brooks, 2006)가 혼재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나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하여 부모나 성인의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Mannon & Brooks(2006)는 이웃에 대한 전반적 평가(neighborhood assessment)와 이웃의 단합(neighborhood cohesion)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 번아웃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이웃의 전반적 평가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번아웃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의 불안정성과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Young & Montazer, 2018).

한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고 이로 인해 일-가족 양립 차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안녕이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일부 국외 연구에서 사회불안정성의 구조적 및 심리적 불이익(disadvantages)이나 지역사회 만족도 등의 지역사회 변인과 함께 일-가족 갈등을 주요 예측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이다(Minnotte et al., 2013; Young & Montazer, 2018).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은 독립된 원인과 결과구조를 가진 별개의 변인이다(Demerouti & Geurts, 2004; Grzywacz & Marks, 2000). 또한, 일-가족 축진 역시 취업모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변인이다(Amstad et al., 2011; Zhang et al., 2018). 따라서 일-가족 맥락과 관련한 지역사회 변인이 취업모의 삶의 질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일-가족 갈등 뿐 아니라 일-가족 축진을 주요한 관련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함께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Voydanoff(2005b)가 거의 유일하다.

일-가족-지역사회 맥락과 맥락 간의 상호접점을 중요시 한 Voydanoff(2005b)는 지역사회 참여와 정서적 지역사회 자원과 함께 일-갈등과 축진을 모두 고려하여, 직장만족도, 직장스트레스(job stress), 결혼만족도 및 결혼위기(marital risk)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웃과의 접촉빈도,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과 이웃에 대한 애착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공동체성, 이웃에 대한 애착,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등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위기는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과 축진 및 가족-일 갈등과 축진은 지역사회 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결혼만족도와 결혼위기 및 직장만족도와 직장스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은 결혼만족도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결혼위기와 직장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일-가족 축진과 가족-일 축진은 두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결혼위기와 직장스트레스에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모델은 통제변인과 지역사회 변인을 포함한 상태에서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만을 추가하거나 통제변인 및 지역사회 변인과 함께 가족-일 갈등과 가족-일 축진만을 추가한 것이었다. 즉,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일-가족 갈등과 축진 및 가족-일 갈등과 축진 등 네 변인을 모두 포함한 분석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요인에 의한 결과적 측면(Skinner & Ichii, 2015; Voydanoff, 2005b)이지만, 취업모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변인이다(Amstad et al., 2011; Zhang et al.,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은 취업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도 있지만 일-가족 갈등이나 축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연관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규명에만 초점을 두어, 선행 요인들 사이에 나

타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삶의 질에 관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기존연구에서 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웃의 지지,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편리성이 취업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일-가족 갈등과 축진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인들 중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대한 심리적, 주관적 복지감을 대표하는 변인(Diener et al., 1985; Warr, 1978)인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사회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 관계의 질,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 등 가족영역과 직장영역의 변인들을(노신애·진미정, 2012; Mannon & Brooks, 2006; Voydanoff, 2005b; Young & Montazer, 2018)을 주로 고려한 반면 개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만족도를 결과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두 변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편, 지역사회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 중 어떤 구성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유재연·진미정,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클 수 있는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요소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앞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직장관련 특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요인(이웃의 지지, 자녀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및 접근 편리성)을 비롯하여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및 삶의 만족도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직장관련 특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및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3.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는 일-가족 갈등 및 축진에 의해 매개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총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매년 표본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아동패널, 2023). 해당 패널은 아동의 성장 및 발전과 관련한 아동 특성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부모와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등 다양한 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바, 조사 시점 시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인 11차년도(201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중 결혼 상태를 기혼으로 응답하고 조사시점 당시 취업상태에 대해 취업 중인 것으로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외에 가족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통제하고자 취업상태에 대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들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다중매개효과 분석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연구대상은 총 627명이다.

#### 2. 연구 도구

##### 1) 독립변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이웃의 지지,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 등 네 가지 특성을 고려하였다.

##### (1) 이웃의 지지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응답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전체의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받은 제공처에 대해서도 가정 내·외부의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반면, 해당 패널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수를 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동의 친가 식구, 외가 식구, 응답자의 친구 및 동료, 응답자의 이웃으로 구분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처 중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지지의 제공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인원 수 문항을 사용하여 이웃의 지지정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웃의 수로 이웃의 지지를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의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양육환경 적절성

양육환경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여덟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질문에는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이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등을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음 - 5. 매우 그러함)로 측정하고 있으며, ‘잘모름’(6번)도 선택가능한 응답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잘모름’을 선택한 경우는 결측치로 하였다. 반면,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의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달리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바,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코딩 처리하였다. 여덟 문항의 산술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양육환경 적절성의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환경임을 의미한다. 변인의 Cronbach'  $\alpha$  는 .82이었다.

##### (3)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는 놀이터, 공원, 영화관, 공연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공공복지시설 등 총 13개의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시설의 이용만족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만족함 - 5. 매우 불만족함)로 측정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한편, 각 문항들은 이용의 만족도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이용 안함’(0점)에 대해서도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용 안함’으로 응답한 경우는 결측치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13문항에 대해 평균을 산출하고 해당 변인을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변인의 Cronbach'  $\alpha$  는 .93이다.

##### (4)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은 측정하기 위해, 앞서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의 13가지에 대해 접근 편리성을 매우 불편함(1점)에서 매우 편리함(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 변인을 만든 후에 분석에 포함함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하는 지역의 서비스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편리함을 말한다. 변인의 Cronbach'  $\alpha$  는 .91이다.

##### 2)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못함(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함(5점)에 이르기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매개변인: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은 Marshall & Barnett(1993)의 Work-family strains과 gains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work-family strains(일-가족 긴장) 9문항, work-family gains(일-가족 이익) 7문항, work-parenting strains(일-양육 긴장) 6문항, work-parenting gains(일-양육 이익) 4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가족 갈등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등 두 영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이나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일-가족 이익은 '일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는 것이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등 두 영역의 역할들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경험을 묻고 있다. 일-양육 갈등은 일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등을 질문하고 있다. 일-양육 이익은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자신과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네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26문항 모두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취업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가족 갈등이나 축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가족과 일-양육으로 구분한 네 하위요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일-가족과 일-양육 사이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등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취업모가 수행하는 가족역할은 가족구성원 돌봄, 가정관리, 가사노동, 학부모 역할 등 다양하나,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특히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김선미, 2005; 최정숙, 2011). 이는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이 핵심적인 가족역할임을 의미하는 바, 일-양육 갈등과 일-양육 이익 역시 측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 시작시기인 4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로 제한한 것 역시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결코 적을 수 없는 시기임에도 공적돌봄제도가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연령대이기에 해당 시기의 자녀를 둔 취업모에 중점을 두고자 한 연구목적에 고려할 때에도 일-양육 긴장과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4개의 영역 중 일-가족과 일-양육의 긍정적인 측면(gains)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일-가족 축진 변인을, 부정적인 측면(strains)에 해당하는 두 영역의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일-가족 갈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가족 축진에 대해서는 11문항의 산술평균을, 일-가족 갈등은 15문항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각각을 매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91과 .94로 높게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기혼 여성근로자의 일-가족 갈등과 축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바, 일-가족 갈등과 축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을 통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규모를, 가족영역 변인으로 자녀수와 가구형태를, 직장관련 변인으로 종사상 지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로소득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을 기술하도록 하는 서술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대해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해당 질문은 총 7가지 선택지(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2~3년제 대학교 졸업, 6.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7. 대학원 졸업) 중 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거주지역 규모에 대해서는 패널 거주지역 규모에 대해 3가지 선택지(1. 대도시, 2. 읍/면, 3. 중소도시) 중 하나로 답하도록 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대도시를 준거집단으로 하고 중소도시와 읍/면에 대해 각각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으로 자녀수는 총 자녀수를 기입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구형태는 패널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만든 변인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가구형태를 총 다섯 가지로(1. 부모+자녀, 2. 조부모+부모+자녀, 3. 조부모+부모+자녀+친척, 4. 부모+자녀+친척, 5.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결측치가 제거되기 이전 표본에서 연구대상자의 가구형태에 대한 응답 중 4번과 5번 형태로 응답한 여성은 총 5명으로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여 이들을 결측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부모+자녀'가구를 준거집단으로 하고 '조부모+부모+자녀'와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각각의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직장관련 변인으로 근로소득은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월 평균 실 수령 근로소득을 만원단위로 기입하도록 한 서술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변인은 정규성 분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최종분석에는 로그처리한

결과를 포함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당 총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입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대해서는 현재 종사상 지위에 대해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속선 상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기에,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용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였고, 임시직·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각각에 대해 더미처리한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6.0과 PROCESS (프로세스) 3.5 SPSS Version을 사용하였다. 우선, SPSS 26.0을 사용하여,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을 비롯하여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및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일-가족 갈등과 축진에 의해 매개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PROCESS를 사용하여 각 경로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이유는 많은 변인들이 포함된 복잡한 모형에서 잠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추정할 모수의 수를 증가하게 하여 잠재변수의 추정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상영 외, 2020; Hayes, Montoya & Rockwood, 2017). 또한, 최종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보거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들을 하위요인으로 한 잠재변수가 일-가족 갈등 및 축진과 삶의 만족도에 가지는 설명력을 확인하기 보다 각 변인들이 가지는 설명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각 변인의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산출평균을 관찰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관찰변수들 간의 복잡한 매개경로를 확인함에 있어 유용한 분석방법인 PROCESS를 선택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부트스트래핑)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고, 원자료에서 5,000개의 재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통제변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 일-가족 갈등 및 축진,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연령은 평균 41.01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40.2%)가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이 2-3년제 대학교(28.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대도시(40.7%)와 중소도시(53.1%)에 산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취업모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이며, 가구형태의 대부분은 '부모와 자녀'(88.3%)로 구성된 형태였다. 그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39시간이며, 월평균 근로소득을 로그처리한 값의 평균은 5.159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67.0%를 차지하였고 자영업자(14.4%), 임시·일용직(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웃 인원은 최소 0명에서 최대 12명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약 2명 정도였다. 양육환경의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및 접근 편리성 모두 척도의 중간점수(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삶의 만족도에 대해 보면, 일-가족 축진의 경우 보통 수준을 상회하며 4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627)

변인(범위)	빈도(%)	M(SD)
연령(만 30-52)	-	41,011(3,434)
교육수준	중학교	3(0.5)
	고등학교	140(22.3)
	대학교(2-3년제)	176(28.1)
	4년제대학교(5년제포함)	252(40.2)
	대학원	56(8.9)
지역규모	대도시	255(40.7)
	중소도시	333(53.1)
	읍/면	39(6.2)

변인(범위)	빈도(%)	M(SD)
자녀수	-	2.196(0.650)
가구형태	부모+자녀 554(88.3) 부모+자녀+조부모 53(8.5) 부모+자녀+조부모+친척 20(3.2)	
근무시간		39.366(13.091)
월평균근로소득값(단위: 만원)		635.494(632.667)
월평균근로소득값(log)		5.159(1.001)
종사상 지위	상용직 420(67.0) 임시/일용직 62(9.9) 고용주 33(5.3) 자영업자 90(14.4) 무급가족 종사자 22(3.4)	
이웃의 지지(명)	-	1.812(1.793)
양육환경 적절성(1-5)	-	3.659(0.627)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1-5)	-	3.350(0.713)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편리성(1-5)	-	3.332(0.706)
일-가족 축진(1-5)	-	3.767(0.543)
일-가족 갈등(1-5)	-	2.406(0.717)
삶의 만족도(1-5)	-	3.464(0.730)

다. 반면, 일-가족 갈등을 보통을 하회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약 3.5점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 2. 지역사회 변인과 일-가족 갈등 및 축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본 연구는 이웃의 지지,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이용만족도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이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조사하고 동시에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의 VIF(분산팽창지수)가 최대 3을 초과하지 않고 대부분의 변인들이 1~2 사이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4를 활용하여 각 독립변인들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x)에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을, 종속변인(y)에는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인(mediator)에는 일-가족 갈등과 축진을, 공분산(covariate)에는 통제변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살펴보고자 한 독립변수가 총 네 개인데, 그 중 하나를 독립변수로 포함할 경우 나머지 세 독립변인은 공분산에 넣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각 독립변인마다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네 가지 지역사회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고 결과의 가시화를 높이기 위해 그림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일-가족 축진**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beta = .116, p < .01$ ), 이웃의 지지( $\beta = .086, p < .05$ ), 양육환경 적절성( $\beta = .145, p < .01$ )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beta = .171, p < .01$ )는 일-가족 축진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 $\beta = -.150, p < .01$ )은 일-가족 축진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일-가족 갈등**은 근무시간( $\beta = .144, p < .01$ )과 유의한 정적관계에 있는 반면, 양육환경 적절성( $\beta = -.095, p < .05$ )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beta = -.134, p < .05$ )와는 유의한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근무시간( $\beta = -.095, p < .05$ )과 일-가족 갈등( $\beta = -.121, p < .01$ )과 유의한 부적관계가, 근로소득( $\beta = .112, p < .01$ ), 양육환경 적절성( $\beta = .114, p < .01$ ) 및 일-가족 축진( $\beta = .221, p < .001$ )과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웃의 지지에 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일-가족 축진.000, .016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의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이웃의 지지는 일-가족 축진에 의한 간접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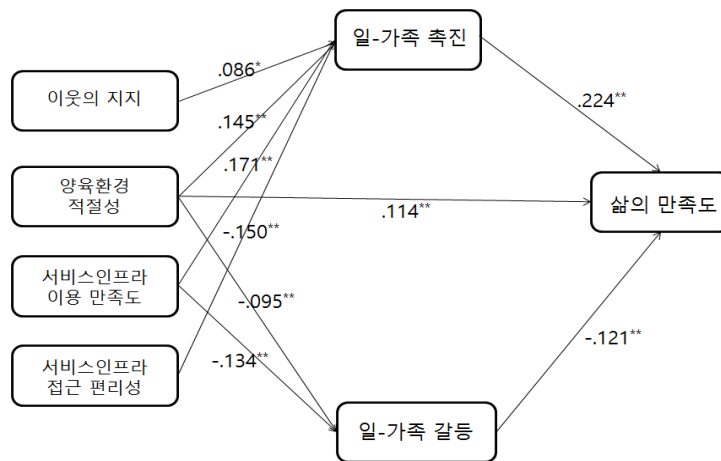
양육환경 적절성의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일-가족 축진.013, .066과 일-가족 갈등 [000, .033] 모두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두 변인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양육환경의 적절성은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

〈표 2〉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 분석 결과(N=627)

	일-가족 축진			일-가족 갈등			삶의 만족도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2.396	(.428)		2.155	(.568)		.920	(.579)	
연령	-.001	(.006)	-.003	.009	(.008)	.044	-.010	(.008)	-.047
교육수준	.067	(.025)	.116 **	.011	(.033)	.014	.037	(.032)	.048
근로소득	.071	(.057)	.054	.085	(.076)	.049	.196	(.073)	.112 **
지역규모 <sup>1)</sup>									
중소도시	-.005	(.045)	-.004	-.038	(.059)	-.026	.025	(.057)	.017
읍/면	.047	(.099)	.021	-.168	(.131)	-.057	.032	(.126)	.011
근무시간	.002	(.002)	.035	.008	(.002)	.144 **	-.005	(.002)	-.095 *
종사상 지위 <sup>2)</sup>									
임시/일용직	-.035	(.076)	-.019	-.137	(.101)	-.057	-.011	(.097)	-.004
고용주	.044	(.096)	.018	.159	(.128)	.049	.101	(.123)	.031
자영업자	.121	(.063)	.078 +	-.100	(.083)	-.049	-.020	(.080)	-.010
무급가족종사자	-.144	(.120)	-.049	.089	(.159)	.023	.164	(.152)	.041
자녀수	-.013	(.033)	-.016	-.033	(.044)	-.029	.034	(.042)	.030
가구형태 <sup>3)</sup>									
부모+자녀+조부모	-.114	(.076)	-.058	.023	(.101)	.009	-.002	(.098)	-.001
부모+자녀+조부모+친척	-.140	(.123)	-.046	-.097	(.163)	-.024	.079	(.157)	.019
이웃의 지지	.026	(.012)	.086 *	-.006	(.016)	-.014	.017	(.016)	.040
양육환경 적절성	.126	(.037)	.145 **	-.109	(.049)	-.095 *	.132	(.048)	.114 **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130	(.046)	.171 **	-.135	(.061)	-.134 *	.037	(.059)	.036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편리성	-.115	(.048)	-.150 *	-.014	(.063)	-.014	.044	(.061)	.043
일-가족 축진							.301	(.057)	.224 ***
일-가족 갈등							-.123	(.043)	-.121 **
$R^2$	.297			.285			.431		
$\Delta R^2$	.088			.081			.186		
F	3.458***			3.154***			7.299***		

\* $p < .05$ , \*\* $p < .01$ , \*\*\* $p < .001$

주석: 1) 준거집단은 대도시임, 2) 준거집단은 상용직임, 3) 준거집단은 '부모+자녀' 가구임



〈그림 1〉 매개효과 검증

나라 일-가족 갈등과 축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가족 갈등과 축진 모두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실시 결과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일-가족 축진(.011, .072)과 일-가족 갈등[.001, .039] 모두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BC95%CI	
		LLCI-ULCI	
이웃의 지지 → 일-가족 축진 → 삶의 만족도	.008 (.004)	[.000, .016]	
양육환경 적절성 → 일-가족 축진 → 삶의 만족도	.038 (.014)	[.013, .066]	
양육환경 적절성 → 일-가족 갈등 → 삶의 만족도	.013 (.009)	[.000, .033]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 일-가족 축진 → 삶의 만족도	.039 (.016)	[.011, .072]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 일-가족 갈등 → 삶의 만족도	.017 (.010)	[.001, .039]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편리성 → 일-가족 축진 → 삶의 만족도	-.035 (.015)	[-.065, -.006]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의 경우는 일-가족 축진의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일-가족 축진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065, -.006]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은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일-가족 축진에 의한 간접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축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취업모의 일-가족 맥락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인구학적, 가족관련, 직장관련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들의 일-가족 갈등 및 축진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가족 양립의 중요한 차원임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 취업모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한 이웃의 지지,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및 접근 편리성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가족 갈등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낮고 일-가족 축진 수준은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각의 지역사회 관련변인과 일-가족 갈등과 축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및 직장관련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축진은 유의하게 높고 일-가족 갈등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가족 및 직장영역 변인들을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가족 축진을 향상시키는 등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변인이 일-가족 갈등과 축진 모두에 유의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주희, 2010; Skinner & Ichii,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갈등과 축진 중 하나의 변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김소영, 2018; Voydanoff, 2005a)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자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Voydanoff, 2005a) 18세 이하로 제한 하는(김소영, 2018) 등 자녀연령의 범위를 넓게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주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중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특성 및 양육환경 적절성과 같은 주관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변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일-가족 갈등과 축진이 매개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Voydanoff(2005a)는 가족과 지역사회 변인이 요구 변인인지 자원 변인인지에 따라, 요구변인은 일-가족 갈등에 더 강하게 관련될 수 있는 반면 자원변인은 일-가족 축진에 더 강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차별적 현저성(differential salience)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방향성이 없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Voydanoff(2005a)는 가족→일(가족에서 직장으로의) 갈등과 축진만을 살펴본 것이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일 수 있다.

한편, 일-가족 갈등 및 축진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가족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반면 축진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도 일-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일-가족 축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많은 선행연구(Amstad et al., 2011; Zhang et al., 2018)에서 밝혀진 결과가 본 연구대상에서도 적용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웃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가족 축진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이웃의 지지는 일-가족 축진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는 두 매개변인 모두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이웃의 지지와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는 취업모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차원의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양육환경 적절성 역시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을 통해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양육환경 적절성 척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안전성의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많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유아녀 기혼 남녀의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에 거주환경 안전성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박주희, 2010). 특히, 양육환경 적절성은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취업모들에게 여러 가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 중 양육환경 적절성이 그들의 삶의 질에 가장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별 세부적 지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환경 적절성에 중점을 둔 지원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세 변인이 지역사회 차원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직접적으로든 일-가족 갈등 또는 축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일-가족 축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그 결과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의 접근 편리성이 취업모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일-가족 축진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친화적 요인으로 거주환경 접근성을 고려하여 역할긴장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박주희(2010)의 연구에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역할긴장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돌봄자의 입장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가족서비스기관 등에 접근하기 쉬울수록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할 기회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만큼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어 역할 긴장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으로 인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추측하였다(박주희, 2010). 이러한 해석에 기반할 때, 본 연구에서도 취업모와 자녀의 거주지에서 인프라 시설이나 기관에 접근하기 너무 쉬운 경우, 그만큼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거나 자녀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접근성이 사회적 자원이 아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일-가족 축진과 부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박주희(2010)의 역할긴장도와 유사한 개념인 일-가족 갈등이 아닌 일-가족 축진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박주희(2010)는 역할긴장도와 역할만족도를 각각 따로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과 축진을 매개변인으로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역완충효과로 인해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부적관계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김준기·양지숙, 2010).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만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준기·양지숙, 2012; Kaufmann & Beehr, 1986). 자녀양육을 중요한 역할로 느끼는 여성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기·양지숙, 2012; 김현동·김명희, 2011). 추후 이와 같은 기제로 인해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과 일-가족 축진 간에 부적관계가 나타난 것인지 실질적으로 검증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와 접근 편리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양적 확대는 오히려 일-가족 축진을 저하하고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인프라의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 보다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업모의 직장 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병행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의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측정에 포함한 각 기관들의 이용만족도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일-가족 갈등 또는 일-가족 축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자녀양육과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아직까지도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올수록 기혼 남성들에게도 일-가족 양립이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혼 남성 근로자나 맞벌이 남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패널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으로 포함한 변인에 한계가 있었다. 예로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중점을 둔에 따라, 이웃의 지지를 사회적 지지를 직접적으로 측정된 변인이 아닌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웃의 인원수 문항으로 대체하여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갈등이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존재하는 바, 향후 이웃으로부터의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수준을 직접 측정된 변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심 뿐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 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지역사회 변인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과 일-가족 갈등 및 축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소영, 2017; 김소영, 2018)에서 개인수준의 변인정보와 지역사회수준의 변인정보를 각각 다른 곳에서 추출한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 패널 응답자로부터 획득한 개인, 가족, 직장 및 지역사회 차원에 대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변인이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축진을 비롯하여 삶의 만족도에 가지는 영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1) 강지원 · 이세미(2015). 아동 · 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225, 60-70.
- 2) 박현근(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3)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가정과삶의질연구, 23(6), 105-116.
- 4) 김소영(2017).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과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갈등. 가정과삶의질연구, 35(4), 157-172. DOI : 10.7466/JKHMA.2017.35.4.157.
- 5) 김소영(2018). 가족, 일, 지역사회 자원과 유자녀 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과 축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1), 55-69. DOI : 10.6115/fer.2018.004.
- 6) 김준기 · 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251-280.
- 7) 김현동 · 김명희(2011). 기혼여성직장인의 가치관에 따른 직장과 가정의 긍정적 전이과정 탐색. 여성연구, 81(2), 33-67. DOI : 10.33949/tws.2011.2.002.
- 8) 김혜영 · 홍승아 · 이택연 · 선보영 · 진미정 · 홍성만(200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9) 노신애 · 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0(3), 135-149. DOI : 10.7466/JKHMA.2012.30.3.135.
- 10) 노신애 · 진미정(2013).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가족친화성 평가: 서울시 거주 미취학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279-294.
- 11) 박인숙 · 이재립(2022).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 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 다양한 예측 요인과 심리적 결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19-36. DOI : 10.22626/jkfrma.2022.26.2.002.
- 12) 박정민 · 진미정(2022).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 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 2009, 2019년 생활시간조사 비교. 인간발달연구, 29(4), 31-48. DOI : 10.15284/kjhd.2022.29.4.31.
- 13) 박주희(2010).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유자녀 기혼남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만족도, 가족지원 프로그램만족도,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정보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8(5), 53-66.
- 14) 배상영 · 강윤경 · 안소영 · 홍세희(2020).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2), 263-290. DOI : 10.14816/sky.2020.31.2.263.
- 15) 법제처(202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0%80%EC%A1%B1%EC%B9%9C%ED%99%94#undefined>에서 2023. 03 인출
- 16) 손보영 · 김수정 · 박지아 · 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 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17) 손영미 · 박정열(2015).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조직, 지역사회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국가비교연구: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9(2), 51-74.
- 18) 신미 · 전성희 · 유미숙(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19) 신화경 · 조인숙(2013).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6), 177-187. DOI : 10.6107/JKHA.2013.24.6.177.
- 20) 유재언 · 진미정(2012). 도시화 규모에 따른 미취학자녀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교. 가정과삶의질연구, 30(6), 39-51. DOI : 10.7466/JKHMA.2012.30.6.039.
- 21) 유재언 · 진미정(2013).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구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3), 63-79. DOI : 10.7466/JKHMA.2013.31.3.063.
- 22) 윤연정 · 이미숙(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특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7(4), 71-86. DOI : 10.7466/JKHMA.2019.37.4.71.
- 23) 윤희상 · 한영란(2008). 취약계층 초등학교 고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2), 167-176.
- 24) 정영금(2007).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일-가족 균형.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1(1), 37-51.
- 25) 정춘식(201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조성은 · 정지영 · 한지수(2009).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녀 돌봄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 경기지역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3(1), 147-168.
- 27)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한국가족복지학, 23(2), 337-361.
- 28)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가정과삶의질연구, 28(2), 63-76.
- 29) 차성란(2020).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에 대한 사례연구-제주지역 이주민 돌봄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4(3), 55-77. DOI : 10.22626/jkfrma.2020.24.3.004.
- 30) 최정숙(2011). 일-가족 역할갈등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학령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9, 214-247.
- 31) 통계청(2022).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통계청
- 32) 통계청(2023). 자녀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에서 2023. 03 인출
- 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 2021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 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34) 한국아동패널(2023). 한국아동패널 소개.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50](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50)에서 2023. 03 인출
- 35)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2007).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직장 · 지역사회 의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6) 홍승애 · 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 37) 홍예지(202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잠재전이분석: 일-가정 균형의 유형 및 유형 간 전이의 예측요인 검증 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199-213. DOI : 10.6115/fer.2021.015.
- 38) Amstad, F. T., Meier, L. L., Fasel, U., Elfering, A. & Semmer, N. K.(2011). A meta-analysis of work-family conflict and various outcom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cross-domain versus matching-domain rel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2), 151-169. DOI : 10.1037/a0022170.
- 39) Demerouti, E. & Geurts, S.(2004). Towards a typology of work-home interaction. Community, Work & Family, 7(3), 285-309. DOI : 10.1080/1366880042000295727.
- 40)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 : 10.1207/s15327752jpa4901\_13.
- 41) Grzywacz, J. & Marks, N.(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DOI : 10.1177/0192513X05277542.
- 42) Hayes, A. F., Montoya, A. K. & Rockwood, N. J.(2017). The analysis of mechanisms and their contingencies: PROCESS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5(1), 76-81. DOI : 10.1016/j.ausmj.2017.02.001.
- 43) Kaufmann, G. M. & Beehr, T. A.(1986). Interactions between job stressors and social support: Some counterintuitive resul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3), 522-526. DOI : 10.1037/0021-9010.71.3.522.
- 44) Mancini, J. A., Bowen, G. L. & Martin, J. A.(2005).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A conceptual linchpin in examining families in the context of communities. Family Relations, 54(5), 570-582. DOI : 10.1111/j.1741-3729.2005.00342.x.
- 45) Mannon, S. E. & Brooks, W. T.(2006). Neighborhood family-friendliness and its effect on family relations: Evidence from Utah. Sociological Spectrum, 26(4), 405-421. DOI : 10.1080/02732170600659165.
- 46) Marshall, N. L. & Barnett, R. C.(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47) Minnotte, K. L., Pedersen, D. E. & Mannon, S. E. (2013). Work and family stressors and the quality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Do neighborhood resources matter?. *Sociological Focus*, 46(1), 68-84. DOI : 10.1080/00380237.2013.740993.
- 48) Skinner, N. & Ichii, R. (2015). Exploring a family, work, and community model of work-family gains and strains. *Community, Work & Family*, 18(1), 79-99. DOI : 10.1080/13668803.2014.981507.
- 49) Sweet, S., Swisher, R. & Moen, P. (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5), 596-606. DOI : 10.1111/j.1741-3729.2005.00344.x.
- 50) Swisher, R., Sweet, S. & Moen, P. (2004). The family 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81-292. DOI : 10.1111/j.1741-3737.2004.00020.x.
- 51) Voydanoff, P. (2004). Community as a context for the work-family Interface.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1(1), 49-54. DOI : 10.1057/omj.2004.12.
- 52) Voydanoff, P. (2005a). The differential salience of family and community demands and resources for family-to-work conflict and facilit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6(3), 395-417. DOI : 10.1007/s10834-005-5904-7.
- 53) Voydanoff, P. (2005b). Social integr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job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66-679. DOI : 10.1111/j.1741-3737.2005.00161.x.
- 54) Voydanoff, P. (2005c). The effects of community demands, resources, and strategies on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work-family interface: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Family Relations*, 54(5), 583-595. DOI : 10.1111/10.1111/j.1741-3729.2005.00343.x.
- 55) Voydanoff, P. (2008). A conceptual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In K. Korabik, D. S. Leno, & D. L. Whitehead (Eds), *Handbook of Work-Family Integration: Research, Theory, and Best Practices* (pp. 141-156). CA: Elsevier.
- 56) Warr, P. (1978). A study of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9(1), 111-121. DOI : 10.1111/j.2044-8295.1978.tb01638.x.
- 57) Young, M. (2015). Work-family conflict in context: The impact of structural and perceived neighborhood disadvantage on work-family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50, 311-327. DOI : 10.1016/j.ssresearch.2014.12.001.
- 58) Young, M. & Montazer, S. (2018). Neighborhood effects on immigrants' experiences of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Society and Mental Health*, 8(1), 25-49. DOI : 10.1177/2156869317720713.
- 59) Zhang, Y., Xu, S., Jin, J. & Ford, M. T. (2018). The within and cross domain effects of work-family enrich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4, 210-227. DOI : 10.1016/j.jvb.2017.11.003.

- 투 고 일 : 2023년 03월 27일
- 심 사 일 : 2023년 04월 05일
- 계 재 확정 일 : 2023년 04월 18일